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 Q 방법론 적용

박 송 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간호의 목표는 환자 개개인의 요구에 기초를 둔 전인간호에 있으며, 간호학의 학습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임, 1977). 간호교육의 목적은 간호학생에게 보다 효과적인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하여 수준높은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 간호가 과학으로서 또 전문교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론으로 얻는 지식이 간호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간호학은 실천철학을 지닌 응용과학으로 이론강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인 임상실습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되는데 임상실습이란 간호교육의 정규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환자간호를 위한 간호학생들의 임상경험을 직접 계획 조직하여 지도 평가하는 것을 가리킨다(오, 1974).

그동안 임상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호교육과정에서 간호학생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3대요소인 지식, 정신, 기술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강의와 실습은 가장 중요하고 상호보완작용을 한다. 그러나 강의는 학교에서 직접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이론중심이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벗어나 종합병원이나 보건소등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대학의 지도교수가 계속 상주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조직체계나 분위기등 모든 상황이 생소하고 긴장을 유발할수 있어서 간호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임상실습은 1학점당 실습시간이 3시간으로 재학중 전문대학 학생들의 총 실습시간을 보면 약1000 시간으로 실제로 임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주 많다. 그러므로 임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나 태도는 임상실습이 수업내용으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각 개인의 삶과 인생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김미예(1981)의 연구를 보면, 간호학생들이 대학에서 당면한 문제점이 첫번째 실습문제(54.6%), 두번째 취업문제(29.2%)로 나타나 간호학생에게 임상실습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임상교육은 매우 중요하므로 학생이 실습을 통해 형성된 임상교육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여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 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의 특성과 유형별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서울보건전문대학 간호과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학생 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주관성을 측정하는데 그 적의성이 인정되고 있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간호학생들의 간호학에 대한 인식 및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유형을 분석하여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간호학에 대한 이념 및 철학을 확실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실습과 관련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대처 방법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의 유형을 파악하고, 둘째,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고, 셋째, 유형별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간호증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다.

II. 문헌고찰

Brown(1960)은 임상간호 교육이란 학습교육을 보충하고 통합하고 활용하여 원리의 응용이 가능해지고, 개성이 다른 환자를 위해 육체적, 정서적, 영적요구등을 개인에 따라 파악하여 간호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환자와 환자 가족의 집단교육을 위한 계획을 하고 이행하는 능력이 생기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오(1974)는 임상학습이란 지식의 습득, 행동습관의 체득인 지적, 태도, 기술, 활동을 자극하는 간호교육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며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인 임상으로 옮겨서 이론과 지식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학생들의 실습 경험을 직접 계획하고 조직하여 가르치고 지도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였다. 임(1977)은 이론 학습을 통해 지식을 배우고, 경험 학습을 통해 이론 학습을 바탕으로 한 간호의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하였으며, 이(1976)는 간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과정이 갖는 목적은 인간의 지적, 태도적, 기술 활동적 영역을 변화시키는데 있으며, 이 중 특히 태도적 영역은 느낌, 감정등의 변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육목적 달성에 중요한 부분이다.

Smith(1956)은 인간의 태도를 “개인의 심리 사회적 환경과 정보적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태도가 수정되고 또 태도의 변화 정도는 성격, 성숙정도, 경험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정의하였고, Guilford(1959)는 태도란 “한 개인이 어떤 형태의 사회적 사물이나 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갖는 찬성이나 반대의 경향이다”라고 하였으며,

정(1965)은 태도를 “개인의 특수한 행동이나 반응이라기 보다 여러가지 사물, 개념, 사상, 주의등에 대한 긍정, 부정, 승인등으로 반응하려는 감정적 색조인 동시에 개인이 어떤 사태에 처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내적 경향”이라고 하였다.

이(1977)는 간호학 임상 교육과정의 요소가 되는 교육목적 설정, 임상실습 환경, 임상실습의 제도, 임상실습 지도 및 평가등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으며, 김(1979)은 임상 실습교육의 문제점으로 간호철학 및 이념의 빈곤, 이론과 실무의 격차,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점, 바람직한 간호를 수행하려는 의욕의 상실등을 들고 있다. 특히 간호학생들이 이와같은 실습 교육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간호학에 대한 확고한 이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습에 대한 회의와 갈등을 느끼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1977)는 간호학을 선택한 시기와 동기는 고교졸업당시에 선정한 경우가 87.3%였고, 자신의 의사로 택한 경우가 73.3%였으나, 간호학습에 대한 만족도는 30.0%로 낮았는데 그 이유는 “임상실습제도와 행정상의 문제등 교육내용이 기대한 것과 다르기때문”이 가장 큰 이유였다. 졸업후 희망분야는 임상간호가 44.7%로 가장 높았고, 임상지도교수에게 직접 지도를 받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가 86.7%로 이는 앞으로 학습지도에서 시정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하였다. 임상실습현장이 교육환경으로 부적당하다가 87.3%로 주 이유는 “시설 및 재료의 부족, 임상지도교수의 부족, 임상실습을 학습이 아니고 인력으로 대체하는 문제”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이 방학중에도 시행된다가 78.0%로 나타나 임상학습의 과중함을 알 수 있어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김(1975)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의 실습량이 과다하다가 47%, 임상실습 지도자의 지도방법 및 지도내용에 대한 불만이 75%, 그리고 임상에서 간호사, 의사, 환자와의 관계는 원만히 유지하고 있으나(43%), 반응이 적은 환자와의 대화가 어렵다(45%)로 나타나 학생들에게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도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미예(1981)의 연구는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이 47.7%로 배운 지식의 활용과 의료행위와의 참여, 그리고 새로운 병원생활에 대한 호기심의 순서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에 대한 중압감은 임상실습의 엄격성, 지식의 적용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가 주 이유로 80.0%로 나타났다. 김주희(1981)의 연구결과는 실습전 실습에 대한 기대감 55.3%, 실습에 대한 선입견 및 불안감

49.7%, 실습후 만족감은 42.5%로 나타났고, 종료를 가진 학생이 실습전 선입견 및 불안감이 낮았고 기대감은 높았으며, 실습후 만족감도 높았다. 가족중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실습전 기대감이 낮으면서 실습후 만족도도 낮았다. 그러나 본인의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 유무별 학생의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오(1984)의 연구에서도 김주희(1981)의 결과와 비슷하게 실습전 불안감이 46.0%, 실습후 불안감은 53.6%로 임상실습후의 불안이 높게 나타나 기대에 어긋나는 실습으로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여러 문헌에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간호현장에서 학생들이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임상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간호기술, 간호지식,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실습전 orientation을 충분히 시키고, 간호학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심어주며, 교육적인 실습 환경의 조성등 바람직한 교과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연구방법

1. Q 표본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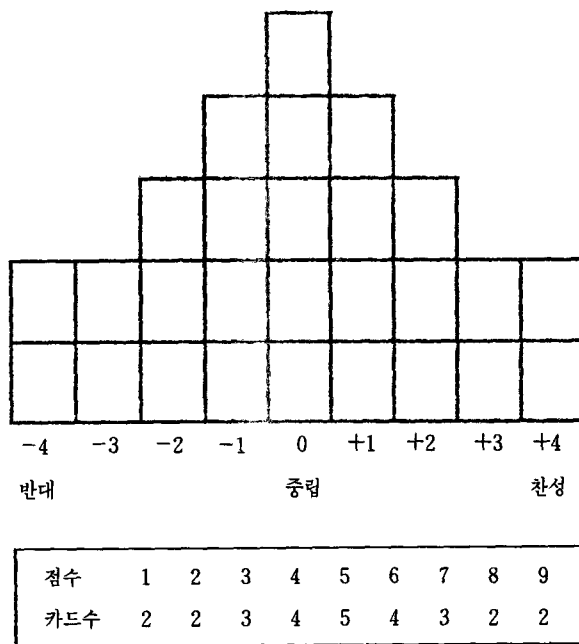
본 연구는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Q-방법론의 유용성을 토대로 하여 실시한 것으로 간호학생의 태도유형,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 각 유형별 특성에 관해 알아보았다. 연구는 Q 모집단을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고 문헌고찰 및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선택동기 12개, 임상실습의 필요성 9개, 임상실습의 기대감 14개 및 임상실습의 만족감 20개, 임상실습에 대한 중압감 33개와 임상실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28개, 임상실습의 정의 및 목표 21개, 간호의 대상 6개등에 관한 내용등 총 143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진술문에 관하여 간호학교수 8인의 자문을 받아서 자아참조적 Q 진술문 카드 27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였다.<표1>

<표 1> Q-statement

1. 간호는 사회와 인류 복지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 선택했다.
2. 간호학은 나의 적성과 취미에 잘 맞는다.
3. 간호학은 졸업후 취업이 잘 되므로 선택했다.
4. 간호사는 해외로 나갈 기회가 많으므로 선택했다.
5. 부모나 선생님의 권유로 간호학을 선택했다.
6. 어릴때부터 하얀 가운을 입은 나이팅게일이 되고 싶었다.
7. 임상실습은 이론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응용할 수 있다.
8. 임상실습은 전문적 간호사로서 창의력과 판단력을 기르는데 필요하다.
9. 임상실습을 통해 전인간호를위한 문제의 발견과 제책, 수행 능력을기른다.
10. 임상실습은 건강요원과 협조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11. 임상실습은 삶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된다.
12. 임상실습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 환자를 위로할 수 있다.
13. 임상실습을 통해 환자의 치료 및 간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
14. 임상실습은 다양한 대인관계속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
15. 임상실습을 통해 기본간호 기술이 점차 익숙해진다.
16. 실습도중 수간호사와 환자에게 인정을 받아서 기뻐다.
17. 임상실습을 하면서 강의시간에 이해하지못한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18. 환자의 질병에 대한 치료과정을 잘 모르므로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19. 임상실습시 보고서 작성등 실습 과세량이 많아서 힘들다.
20. 병원은 세균이 많아서 세균에 전염될까 걱정된다.
21. 병원은 분위기가 경직되고 행동이 제한된 곳이다.
22. 병원은 수술과 주사기같은 예리한 기구를 생각나게 한다.
23. 임상실습을 위한 간호학생 실습복 차림이 어색하다.
24. 인공호흡기등 많은 기구를 부착한 중환자를 보면 떨린다.
25. 전문적인 환자간호를 위한 실습보다는 단순한 업무보조가 더 많다.
26. 간호철학이 부족하여 실습시의 갈등을 극복하기 어렵다.
27. 환자들이 공부하는 학생으로 대우해주지 않아 서운하다.

조사 대상자가 임상실습에 대한 진술문을 읽은 후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일정한 분포속에 강제적으로 분류하게 한다(Q-sorting). 즉 각 진술문이 적힌 카드 27장을 읽고 카드를 긍정(+), 중립(0), 부정(-) 등 크게 3무더기로 분류한 다음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이 적힌 카드부터 차례로 골라 오른쪽 바깥에서(+4)

안쪽 중립부분에 놓도록 한다. 또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이 적힌 카드부터 차례로 골라 왼쪽 바깥에서(-4) 안쪽 중립부분에 놓도록 한다. 이때 양극에 놓인 진술문(+4, -4) 4개에 대해서 가장 긍정하거나 또는 가장 부정하는 이유를 각각 쓰도록 하였다.<그림 1>



<그림 1> Q진술문의 분포도

2. P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S보건전문대학 간호과 2학년 14명, 3학년 11명 등 총 25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1993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여 Q-분류(Q-sort)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Quanl PC Program을 사용하여 P 표본 25명의 Q sort를 주인자 요인분석법, 사각회전, WRAP(Weighted Rotational Analytical Procedure) 단계로 유형의 특성을 파악했다.

IV. 연구결과

1. Q-factor의 구성

본 연구는 전문대학의 간호과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2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7개의 Q 표본을 분류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인자의 변량도가 36.02%, 둘째 인자의 변량도가 12.19%, 셋째 인자의 변량도가 7.08%로 전체 변량도(total variance)는 55.3%로써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를 55.3%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Q-방법이 존재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으나 이미 발

전된 Q요인들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 라고 한 주장 (김, 1990)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들 설명변량중 첫째 유형은 65.15%, 둘째 유형은 22.05%, 셋째 유형은 12.81%로써 주인자 행렬표 (principal components matrix) 와 varimax 회전방식에 의

한 행렬표(varimax-rotation matrix)에서 간호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가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중 인자가중치(factor loading)가 가장 큰 사람이 그 유형의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표 2> 조사 대상자의 유형별 분포와 인자가중치

유형	순위	변인	학년	나이	성별	종교	임상실습	입원경력	조무사	희망분야	가중치
1	1	18	3	21	여	무	유	가족	무	임상	3.7710
	2	6	2	20	남	무	유	무	무	임상	2.1619
	3	2	3	24	여	무	유	가족	유	임상	1.8616
	4	5	2	20	여	무	무	무	무	머청	1.3316
	5	21	3	21	여	기독교	유	무	무	임상	1.1413
	6	16	2	21	여	무	유	무	무	임상	1.0311
	7	12	3	23	여	천주교	유	가족	무	보건	.8339
	8	15	3	24	여	무	유	가족	무	임상	.7817
	9	8	2	22	여	기독교	유	무	무	임상	.7469
	10	25	2	22	여	무	유	무	무	가정간호	.6983
	11	11	2	22	여	천주교	유	무	유	임상	.6946
	12	23	2	21	남	기독교	유	무	무	임상	.5552
	13	22	2	21	여	천주교	유	무	무	공무원, 마취사	.2885
	14	7	2	20	여	기독교	무	무	무	양호교사	.2446
2	1	1	3	23	여	불교	유	가족	유	임상	3.6337
	2	9	2	22	여	불교	유	가족	유	임상	2.5658
	3	14	3	23	여	무	유	본인	유	임상	1.3921
	4	20	3	22	여	불교	유	본인	무	임상	1.1827
	5	13	3	24	여	무	유	무	유	임상	.9003
	6	10	2	22	여	불교	유	무	유	임상	.8133
	7	19	3	20	여	기독교	유	무	무	임상	.3538
3	1	4	2	19	여	무	무	무	무	임상	1.6992
	2	3	3	23	여	무	유	무	유	보건	1.6649
	3	24	2	21	여	무	유	무	무	임상	.8697
	4	17	2	21	여	무	유	가족	무	임상	.5344

2. 임상실습태도에 대한 유형별 특성

임상실습에 대한 세 유형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27개의 진술문중 인자가중치(factor loading)가 높은 항목들 ($Z\text{-score} > +1$, $Z\text{-score} < -1$) 즉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Z\text{-score} > +1$)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항목($Z\text{-score} < -1$)을 추출하여 각 유형별로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1) 유형 1 : (원만한 적응형)

유형 1은 25명의 P 표본중 14명으로 구성되어 세 유형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다. 3학년이 5명이고 2학년이 9명이며, 남학생이 2명 포함되어 있다. 종교는 기독교가 4명이고 천주교가 3명으로 나타났는데 인자가중치는 낮은 편이었다. 가족이나 본인의 입원경력이 있는 학생이 4명인데 인자가중치는 높은 편이었다. 임상을 희망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인자가중치가 높았다.

이 유형의 학생들이 동의한 항목을 살펴보기 위해 $Z\text{-score}$ 가 1.00보다 크거나 -1.00보다 작은 진술문을 열거해보면 <표 3>와 같다.

〈표 3〉 유형 1의 특징적인 진술문 (1.00이상)

번호	진술문	Z-score
14.	임상실습은 다양한 대인관계속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85
15.	임상실습을 통해 기본간호 기술이 점차 익숙해질 것이다.	1.47
25.	전문적인 환자간호를 위한 실습보다는 단순한 업무보조가 더 많다.	1.41
11.	임상실습은 삶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1.31
13.	임상실습을 통해 환자의 치료 및 간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	1.00
24.	인공호흡기등 많은 기구를 부착한 중환자를 보면 떨린다.	-1.27
5.	부모나 선생님의 권유로 간호학을 선택했다.	-1.45
4.	간호사는 해외로 나갈 기회가 많으므로 선택했다.	-1.92
6.	어릴때부터 하얀 가운을 입은 나이팅게일이 되고 싶었다.	-2.09

이 유형의 아이겐 값(eigen value)은 가장 높은 9.0044로 간호가 자신의 적성이나 취미와는 잘 맞지 않으며 어릴때에도 주사를 놓는 간호사를 좋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자가중치가 가장 큰 18번 학생의 경우 면담시에 “실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므로” 14번 문항을 가장 동의한다고 하였으며, “실제 임상에 나가 많이 실망하였고 학생을 단순히 노동력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차이가 많음을 알았다”고 하면서 25번 문항을 동의하였다. 그리고 “어릴때부터 하얀 가운을 입은 나이팅게일이 되고 싶었다”는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번째 인자가중치가 큰 6번 학생도 “임상에서 직접 실습을 한 후에 환자의 입장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고 14번 문항에 강한 긍정 반응을 나타냈으며, “환자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13번 문항에 동의하였고, “어릴 때의 꿈은 선생님”이라며 6번 문항에 가장 반대하였으며, “간호가 사회봉사의 측면도 있지만 하나의 직업이다”라며 1번 문항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2번 학생은 “대화도 통하지 않고 힘들것 같다.”, 21번 학생은 “해외로 나갈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23번 학생은 “외국으로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 진술하여 4번 문항에 반대의사를 나타내었다. 또한 23번 학생은 “실습을 하면서 대인관계가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으며, 2번 학생은 “임상에 나가 직접 실습을 하고 난 후 간호기술에 약간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 선택한 전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습을 하면서 간호사, 환자 및 의료팀등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5번, 16번, 21번 학생은 주장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족이나 본인의 입원경력이 있는 학생이 인자가중치가 높았는데 이는 주위에 환자를 대하면서 간호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장래 임상근무를 희망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즉, 이 유형은 간호에 대한 꿈과 동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업무보조 위주의 실습 내용이 많아 실망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실습에 대한 적응을 잘하고 실습 참여에 대해 적극적인 면도 가지고 있어서 졸업후 여러 분야에서의 간호사 역할을 무난히 수행하리라 생각되어 우호적이고 원만한 적응형(amicable adapta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2) 유형 2 : (나이팅게일 사회봉사형)

유형 2는 25명의 P 표본중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학년이 5명이고 2학년이 2명이며, 종교는 불교가 4명이고 기독교가 1명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본인의 입원경력이 있는 학생은 4명인데 모두 인자가중치는 높은 편이었다. 조무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5명으로 가중치가 높았다. 7명 모두 졸업후 임상근무를 희망하였다.

이 유형의 학생들이 동의한 항목을 살펴보기 위해 Z-score가 1.00보다 크거나 -1.00보다 작은 진술문을 열거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유형 2의 특징적인 진술문 (1.00이상)

번호	진술문	Z-score
13.	임상실습을 통해 환자의 치료 및 간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	1.35
14.	임상실습은 다양한 대인관계속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33
1.	간호는 사회와 인류복지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 선택했다.	1.30
2.	간호학은 나의 적성과 취미에 잘 맞는다.	1.25
6.	어릴때부터 하얀 가운을 입은 나이팅게일이 되고 싶었다.	1.24
11.	임상실습은 삶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1.00
27.	환자들이 공부하는 학생으로 대우해주지 않아 서운하다.	-1.06
3.	간호학은 졸업후 취업이 잘되므로 선택했다.	-1.21
4.	간호사는 해외로 나갈 기회가 많으므로 선택했다.	-1.24
26.	간호철학이 부족하여 실습시의 갈등을 극복하기 어렵다.	-1.30
23.	임상실습을 위한 간호학생 실습복 차림이 어색하다.	-1.35
18.	환자의 질병에 대한 치료과정을 잘모르므로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지못한다.	-1.43
5.	부모나 선생님의 권유로 간호학을 선택했다.	-1.66

이 유형의 아이겐 값(eigen value)은 3.0477이었으며, 어릴때부터 하얀 가운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고, 간호가 자신의 적성이나 취미에 잘 맞는다. 인자가중치가 가장 큰 1번 학생의 경우 면담시에 “사춘기이후로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면서 1번 문항을 가장 동의한다고 하였으며, “국민학교 시절에 병원에 가면 하얀 가운을 입고, 아픈 나를 자상하게 돌보아주는 간호사를 보면서 나도 커서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으며 6번 문항에 찬성하였다. 그리고 가장 반대한 문항은 5번으로 “나 자신의 선택이었다.” 라고 주장하였고, 18번 문항도 “환자들에게 진실한 태도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질병에 대해 아는만큼 설명해주었을 때 신뢰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반대하였다. 두번째로 인자가중치가 큰 9번 학생의 경우 문항 1과 2를 가장 찬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임상실습 결과 삶에 대한 알찬 보람을 느꼈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간호사의 삶에 보람과 기쁨을 느껴 간호를 선택했다”이었다. 또한 14번 학생은 “임상실습을 하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병원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환자의 고통과 아픔에 직접 참여하여 힘이 될 수 있을 때는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14번 학생)라고 진술하였고, 13번 학생은 “환자의 진단 검사나 질병의 증상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간호 기술이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유형은 임상실습을 거의 끝낸 3학년 학생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았고, 본인이나 가족중 아파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겪었으며, 입학전

조무사로서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학생이 많았다. 종교의 이타적인 사회 봉사정신과 함께 주위의 입원 경험, 조무사로서 근무한 경험등 어려웠던 시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이 유형은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학문인 간호학이 좋아서 스스로 선택하고, 성실하게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즉 환자 간호를 가장 중요시하는 나이팅게일 사회봉사형(Nightingale : social service)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3) 유형 3 : (현실적 직업추구형)

유형 3은 25명의 P 표본중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가족이나 본인의 입원 경험이 있는 학생은 1명으로 인자가중치가 가장 낮았다. 졸업후 임상근무를 희망한 학생이 많았다.

이 유형의 학생들이 동의한 항목을 살펴보기 위해 Z-score가 1.00보다 크거나 -1.00보다 작은 진술문을 열거해보면 〈표 5〉과 같다.

이 유형은 대학졸업 후 취업이 가장 잘되는 학과중 하나인 간호학을 선택했으며, 아이겐 값(eigen value)은 1.7699로 낮은편이었다. 인자가중치가 가장 큰 4번은 면담시에 “전문대에 진학할 때 가장 먼저 취업을 생각했다. 간호사는 주로 여성들이어서 남자와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진술했으며, 3번 학생은 “다른 직종에 비해 취업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24번 학생의 경우 “졸업후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경제력있는 생활을 하고 싶었으며, 취업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지,

〈표 5〉 유형 3의 특징적인 진술문 (1.00이상)

번호	진술문	Z-score
3.	간호학은 졸업후 취업이 잘되므로 선택했다.	2.17
25.	전문적인 환자간호를 위한 실습보다는 단순한 업무보조가 더 많다.	1.78
2.	간호학은 나의 적성과 취미에 잘 맞는다.	1.65
16.	실습도중 수간호사와 환자에게 인정을 받아서 기뻐다.	1.10
12.	임상실습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 환자를 위로할 수 있다.	1.05
23.	임상실습을 위한 간호학생 실습복 차림이 어색하다.	-1.25
22.	병원은 수술과 주사기같은 예리한 기구를 생각나게 한다.	-1.26
21.	병원은 분위기가 경직되고 행동이 제한된 곳이다.	-1.27
4.	간호사는 해외로 나갈 기회가 많으므로 선택했다.	-1.80

어떤 이미지나 환상은 없었다.” 라고 주장하여 공통적으로 3번 문항에 가장 찬성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마음에 들고, 1학년때보다 2학년때 실습을 하면서 적성에 맞는 것을 알았다.” 고 진술하였다. 이 유형에서 가장 부정적인 항목은 4번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우리나라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 (4번 학생), “생소한 환경이 두렵다.” (3번 학생), “외국생활은 위험 부담이 따르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키울 수 있다.” (17번 학생)라고 주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즉 대부분의 학생이 현실적인 목적에 의해 스스로 간호학을 선택했고, 따라서 긍정과 반대의 주장이 다른 유형에 비해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필요성에 의해 열심히 임상실습을 하다보니 흥미도 생기고 적성에도 맞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이 유형은 주위에서 아픈 사람을 직접 대해보거나 간호에 동경을 가

진 경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실습을 하는 현실적 직업추구형(realistic occupation pursuit)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3. 각 유형간의 일치 항목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태도에서 각 유형별 차이가 있지만 세 유형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거나 공통적으로 부정하는 항목들이 있다. 〈표 6〉

즉 대상자 거의 모두 “임상실습이 삶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되고 실습을 하면서 기본간호 기술이 점차 익숙해질 것이다.” 라는데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부모나 선생님의 권유로 간호학을 선택했거나 간호사가 해외로 나갈 기회가 많아서 선택했다.”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었다.

〈표 6〉 세 유형의 공통적 진술문 (1.00이상)

번호	진술문	Z-score
11.	임상실습은 삶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1.02
15.	임상실습을 통해 기본간호 기술이 점차 익숙해질 것이다.	1.01
5.	부모나 선생님의 권유로 간호학을 선택했다.	-1.26
4.	간호사는 해외로 나갈 기회가 많으므로 선택했다.	-1.65

1. 유형간의 상관관계

세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표 7〉과 같다. 이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인데 유형1(원만한 적응

형)과 유형2(나이팅게일 사회봉사형)의 상관 정도는 $r=.465$ 이고, 유형1(원만한 적응형)과 유형3(현실적 직업추구형)의 상관 정도는 $r=.293$ 이며, 유형2(나이팅게일 사회봉사형)와 유형3(현실적 직업추구형)의 상관 정도는 $r=.273$ 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세 유형의 상관관계

	1	2	3
1	1.000		
2	.465	1.000	
3	.293	.273	1.000

V. 결론 및 제언

간호학은 건강의 유지와 증진 및 질병예방에 초점을 두고 간호원리를 간호과정에 따라 실제에 적용하는 학문이다. 즉 이론 강의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인 임상실습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되는데 임상실습 교육이 중요함에도 임상실습의 특수성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최근 10년간 가까이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아서 간호학생들의 간호학 선택동기, 임상실습의 필요성, 임상실습의 기대감 및 만족감, 임상실습에 대한 중압감과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임상실습의 정의 및 목표, 간호의 대상등 간호학에 대한 인식 및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를 조사분석하여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간호학에 대한 이념 및 철학을 확실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태도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주관성을 측정하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 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의 특성과 유형별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유형에 따른 개별화된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1993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조사대상은 S 보건전문대학 간호과 2,3 학년 학생 25명이었고, Q-표본은 자아참조적인 Q 진술문 카드 143개를 수집하여 그중 최종적으로 27항목을 사용하였다.

조사결과 임상실습에 관한 태도 유형은 세가지로 나타났는데 유형 1은 간호에 대하여 이상이나 꿈을 갖지 않았으며 간호학이 적성에 맞지 않지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는 원만한 적응형으로 나타났으며 25명의 P 표본 중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 2는 어릴때부터 하얀 가운을 입은 나이팅게일이 되고 싶었고, 적성과 취미에 맞아서 스스로 선택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간호사의 삶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나이팅게일

사회봉사형으로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 3은 학교를 졸업한 후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간호학을 선택했으며, 필요에 의해 열심히 임상실습을 하다보니 흥미도 생기고 적성에도 맞는 것을 느꼈다. 이 유형은 현실적 직업추구형으로 4명이었다.

세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모두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원만한 적응형과 나이팅게일 사회봉사형의 상관 정도는 $r=.465$ 이며, 원만한 적응형과 현실적 직업추구형의 상관 정도는 $r=.293$ 이고, 나이팅게일 사회봉사형과 현실적 직업추구형의 상관 정도는 $r=.273$ 이었다.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서 세 유형 모두가 공통적으로 찬성하거나 부정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임상실습이 삶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되고 실습을 하면서 기본간호 기술이 점차 익숙해질 것이다." 라는데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부모나 선생님의 권유로 간호학을 선택했거나 간호사가 해외로 나갈 기회가 많아서 선택했다."는 강한 반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1977)는 간호학을 선택한 동기는 해외진출의 기회가 많기때문(20.7%)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 시대적 여건이 해외에서 취업할 기회가 많았고, 국가적인 견지에서 해외진출을 권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김(1981)은 해외에 진출하기 쉽다가 8.0%로 몇년 사이에 많이 감소한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제에 부합되는 가장 최근의 문헌이 1984년도였기 때문에, 문헌고찰에서 인용한 임상실습에 대한 내용들이 약 10년동안의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실습현장과 학생특성의 변화로 인해 현재의 실습상황과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내용을 기준하여 임상실습 지도에 있어서 학생 개인별 실습에 대한 심리적인 태도 유형을 파악하여 실습지도시 개인별 또는 그룹별 자기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임상실습 팀을 분류할 때 반이나 번호순으로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개인별 유형을 파악하여 분류하고 개인에게 부족한 면을 보완하는 효율적인 지도로 전인간호를 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집담회(conference)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습지도 내용에 있어서 유형별 접근방법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유형 1 원만한 적응형은 환자 간호에 있어서 심리적인 지지등 정서적인 면에 좀 더 비중을 두어 교육하고 간호기술과 지식등도 함께 추구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전인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큰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된다. 유형 2 나이팅게일 사회봉사형은 간호에 대한 철학이 뚜렷하므로 기본간호술등 정확하고 숙련된 기술의 습득과 함께 환자의 간호와 교육에 필요한 과학적인 지식의 추구에 더 비중을 두고 지도를 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형 3 현실적 직업추구형은 필요에 의해 선택한 실리적인 목표 추구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상적이고 봉사적인 측면 즉 간호 윤리와 철학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어 지도하고 복잡한 여러 상황에서 갈등이 있을 때 학생 스스로의 내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시 종교적인 면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상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학생들은 업무보조 위주의 실습내용과 이론과 실제의 차이에 대하여 주장을 많이 하였는데 이는 실습교육 내용이 환자의 실제적인 간호내용이 되도록 임상과 학교와의 간담회등 현장과 학교와의 잦은 접촉과 대화가 요구되며, 간호학 전공 과목의 강의시간에 급속한 발달과 다양한 변화를 지닌 임상에 대한 적절한 내용(예, 시청각 교재 이용...)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강의내용과 현장실습과의 큰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결과를 토대로 간호연구에 있어서 그동안 많이 고려되지 않았던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관하여 반복 연구를 시도하여 임상교육을 포함한 간호교육에서 대상자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김미예(1981).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경북의대잡지, 22(2), 518-525.
 김수지(1979). 임상간호 교육과정. 경희간호연구지, 3(78).
 김영숙(1975). 임상간호교육을 위한 간호학생의 태도 조사. 중앙의학, 28(5), 549-554.
 김주희(1981).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대한간호, 21(1), 45-57.
 김홍규(1990). Q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서울 :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엄영란(1992). 간호사의 생명에 대한 태도 유형 분석. 중앙의학, 57(12), 829-844.
 오가실(1974). 임상간호교육의 진행과정. 대한간호, 13(6).
 오순애(1984).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조사 연구. 중앙의학, 46(2), 125-131.
 이경식(1976). 독학습 자료개발방법. 목적은 무엇인가. 서울보건대학원.
 이기숙(1977). 서울시내 간호전문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관한 태도 조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향련, 강현숙(1992).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태도 연구. 서울대학교간호대학 간호학논문집, 6(1), 25-41.
 임영신(1977).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임상간호원의 태도조사,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논문.
 정범모(1965). 교육평가. 서울 : 풍국원.
 정순영(1991). Q 연구방법론에 의한 간호사의 소진경험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석사논문.
 하양숙, 김복량(1992).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간호대학 간호학논문집, 6(1), 61-79.
 Brown, A. f. (1960). Curriculum Development. W. B. Saunders Co.
 Guilford, J. P. (1959). Personality. N. Y. : MC Gran-Mill Book Co.
 Smith, B. M. (1956). Opinions and Personality. N. Y. : Wiley.
 Stephenson, W. (1953). The Study of Behavior.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bstract -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 Clinical Education : Q methodological Approach

Park, Song Ja*

The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attitude of

* Dept. of Nursing, Seoul Health Junior College

nursing students to clinical education through Q-methodology. A Q sample was developed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nterviews. Twenty-seven statements made up the finalized Q-sample. This was out of an initial 143 statements developed through consultation with eight professors. The P sample consisted of 25 nursing students in S Health Junior College. Q statements were written on separate cards and were given to the 25 subjects to sort according to degree of agreement or disagreement. The Q-sorts by each subject were coded and analyzed with QUANL PC Program.

The analysis discovered three major attitudes, namely "amicable adaptation" (type 1), "Nightingale . social service" (type 2), and "realistic occupation pursuit" (type 3). The correlation was .465 between type 1 and type 2, .293 between type 1 and type 3, and .273 between type 2 and type 3.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were as follows :

Type 1 (amicable adaptation) They satisfied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clinical setting. They would not dream of becoming Nightingale, but thought of nursing care affirmatively and performed

their works faithfully and adapted themselves to the new circumstances easily. Fourteen subjects were classified as type 1.

Type 2 (Nightingale: social service) They often dreamed as a child that they would be Nightingale with a white uniform and think that nursing is a gift from heaven. They have an aptitude for nursing care by nature and selected nursing science themselves. They give care to the sick with pleasure. Seven subjects were classified as type 2.

Type 3 (realistic occupation pursuit)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eir nursing practice. First of all they want a stable job, therefore they selected nursing science. They had conflicts in clinical practice, but were responsible for nursing and studied hard. Four subjects were classified as type 3.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to clinical education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clinical education would be more valuable, if it was planned according to an understanding of the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 clinical education.